

## 6자회담 전망 낙관적이다

- 김병로 / 2003. 8. 21 -

국회한민족통일연구회 자문위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연구실장 역임,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됩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를, 검증가능하고 영구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남북한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개최된 3자회담 이후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던 북한과 미국이 각자의 주장을 한발씩 양보하여 6자회담이라는 대화의 장에 들어옴으로서 가까스로 정면충돌을 모면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슬아슬하게 진행되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불안한 분석과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핵문제의 파국이 몰고 올 파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회담이나 대화를 앞두고 회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회담 당사국들이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 회담을 앞두고 많이 떠들어댈수록 사전에 회담내용이 오고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회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에서 상대방을 압박하여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담을 앞두고 오히려 조용하면 어떤 중요한 사안이 상호간에 조율이 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치 폭풍전야와 같이 회담에 매우 신중한 태도로 임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국이 서로 상당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니 회담이 잘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이번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심리전을 펼치고 있음을 봅니다. 미국은 지난 8월 18일 PSI로 불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서태평양 군사훈련을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을 겨냥해 미사일과 핵무기 관련 기술 및 부품의 수출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자회담 성사를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미스터 김정일'이라고 불렀던 존칭도 갑자기 바꾸어, '위험한 인물'이라든가 '사람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사람' 등으로 비난했습니다.

북한도 여기에 맞서 미국에 매우 강경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콜린 파원 미 국무장관은 '미 행정부가 서면으로 보장하고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불가침을 보장해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북한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핵억제력을 갖추겠다, 즉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 남한 보수우익단체들의 '인공기 소각과 김정일 초상화 찢기'를 문제삼아 대

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불참하겠다, 4대 경험합의서 발효를 거부하겠다며 남한을 압박하다가, 재참가를 선언하는 행동에서도 북한의 전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북미간의 갈등 양상도 6자회담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전술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6자회담에 참여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데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통해 고도성장을 구가하겠다는 신념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정권을 유지시키면서 평화적으로 핵개발을 중단시키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가스관을 한반도로 연결시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고 합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르쿠츠크나 연해주의 천연가스를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에너지를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핵개발 중단을 선언하기만 하면 러시아 천연가스 사업은 매우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제안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과 미국도 이미 러시아 천연가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기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자회담의 구도에 그동안 배제되었던 러시아의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북한 핵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혔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